하와이 동포 간담회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로하 - 하와이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 - (동포들도 '알로하'로 답하며 박수).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줘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자리를 함께 해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오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고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러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슴 속 느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작년 이주 100주년기념사업은 여러분의 역량이 그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그 행사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미주) 이주 100주년을 맞아 김창원 (기념사업회) 회장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하와이, 전미주에서 성대히 치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그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그 행사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포애와 고국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민 역사는 한국에 잘 소개돼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로도 나옵니다. 하와이라 하면 '사탕수수'라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 하와이에 도착해) 캄캄한 밤중에 차를 타고 오면서 사탕수수가 어디에 어떻게 있었을까 두리번거리며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막상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

사탕수수'가 아니라 대법원장도 계시고, 자료 보니 시장도 계시고 경찰 부국장도 오시고, 상원 하원 부의장도 하고 계시고 이제는 연방의회도 진출하려고 발돋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봤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민) 숫자가 3만7천으로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 동안 노력해서 점하는 위치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마음이 든든하고 기쁩니다.

우리 국민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전세계에서 존경받을 만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 기회에 저도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고국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나 그것 말고 순방했던 얘기를 하려 합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 베트남과 이번에 LA,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나라 정부로부터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 국가원수, 손님을 맞이하면 다 대접을 잘해야 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소홀한 사람도 있는데, 전 아마 최고의 대접을 받고 다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나서 대접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전세계에서 존경받을 만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우리 상품이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갈 때 한국 상품 광고판을 보는 느낌은 국내에서와 사뭇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그저 광고판이지만 외국에서는 그것이 한국의 상징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대우와 광고판, 그리고 사람들이 뭐를 꺼내서 '이것이 한국산'이라고 자랑하는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국민들이 고마웠습니다. 정치로 치면 우리 지도자들이 국내에서 볼 때는 다 꼭 잘한 것만 같지는 않은데, 꼭 일류라고 인정한 일이 없는데, 한국이 성큼 일류 국가로 진입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린 답은 '우리 국민 역량'이다. 어려운 일을 부딪쳐도 극복해내는 국민역량이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제는 40년 동안 100배쯤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아닌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나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이번에 돌았던 나라가 "브릭스(BRICs)'라고 해서 선진국 다음에 세계 대국으로 등장할 가망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이렇게 '브릭스'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덩치도 크고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을 다니며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서 결국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으나 한국의 문제는 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단이 분명하면 처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분명치 않은 문제를 가진 나라가 있으나 한국은 진단이 분명하고 처방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민들의 역량을 생각할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잘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북핵, 남북 평화통일이 가장 걱정이지만 아울러 국내경제도 걱정일 것입니다. 생각을 뒤집어 봅시다. 나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비관적 입장을 갖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크고 사명감이 컸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모습을 바깥에서도 보고 하니까 내가 꼭 사명감을 갖고 펄펄 뛰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한국정치도 전망이 밝습니다. 45년에 식민지에서 해방됐습니다. 국권을 잃은 것만도 40년이고 그 이전 사실상 자기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 표류했던 시기를 합치면 그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70, 80년간의 식민지와 준식민지를 거쳐 해방된 나

라입니다. 그렇게 해방된 나라 중 민주주의, 선거, 의회 등 한국만큼 하는 나라가 별로 있나? 한국이 1등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등상을 주는데 전교 1등이 아니라도 향상만 하면 노력상도 줍니다. 그 상을 주면서 선생님이 '우등상보다도 좋은 거야, 더 열심히 해라', 이럽니다. 한국정치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많은 문제 있지만 밝게 봅니다. 부시 대통령이 맨 처음 날 만나서 '대화하기 편한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어찌 보면 '만만한 친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만나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적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민주적 지도자'라고 불렀겠습니까. 한국이 민주주의를 잘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6자회담 틀이란 '대화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북핵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도를 다 잘 봤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도를 한번 하는데, 하와이에 와서 독립채널을 보니까 보도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더군요. 잘 알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강경한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고 다들 걱정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것은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기존 합의를 확인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6자회담에서 해결합니다. 맨 처음, 취임 이전까지는 무력공격의 필요성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거론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적 해결', 그 뒤에는 '대화에 의한 해결'로 바뀌었습니다. 6자회담 틀이란 '대화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협상하고 마침내 합의를 만들기 위해 마주 앉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남을 의심하고 듣지 말고 진의를 선의로서 신뢰하고 들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말은 거기에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화가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북한이 좀더 신뢰를 갖고 성의 있게 대화에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껴안을 것이고 안전보장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나와 대화과정에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순서, 절차를 놓고 서로 기 싸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임이 계속될 것입니다. 좀 쉽게 합의하면 좋겠는데 양쪽 다 기죽기 싫고, 더 받고 싶고 덜 주고 싶고, 이런 의사가 있는 이상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잘 해결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자세와 의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국민들이 평화적 해결을 원하면 그렇게 되고, 국민들이 다른 방법을 원하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예외 없이 평화에 의해서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국내 국민도 이점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길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지대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박수)

한국과 미국민의 정서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가져가도록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관계, 잘 가야 합니다. 때로는 좀더 대등한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었으니 우리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틀의 흐름이고 큰 틀이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시위도 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미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한미관계는 잘 가야하고, 한미 간에 오랜 관계, 역사적 경험과 정서 등 생각할 때 파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국민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양국 정부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정서입니다. 미국민의 정서를 존중합니다. 정부와는 싸울 수 있지만 국민정서를 거스를 마음은 없습니다. 정부와 싸울 때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르면 구

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지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민의 정서와 가치는 존중합니다. 한국과 미국민의 정서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가져가도록 지도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간질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LA에서 짧은 연설을 했는데 국내에서 많은 논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여러분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한국에 왜곡돼서 전달되고, 한국 내에서는 미국정부가 강경으로 간다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도 연구하고 글 쓰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향을 갖고, 본인이 강경정책을 원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곧 6자회담 틀이 깨지고 뭔가 강경한 적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보기 따라서 걱정한 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미국 정부는 아무런 오해가 없었던 듯합니다. 미국민도 강경책을 선호하는 인식이 혹시 있었다면 그 인식도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큰 오해 없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스레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박수)

오늘 엽서를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알로아 셔츠입니다. 동포 한분이 디자인한 천으로 바느질해 주신 선물입니다. 살짝 펴봤습니다. 참 아름답더군요. 마음에 더 편안하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느낌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보다 아름답습니다. 바닷가 어디서 편안할 때 입으면 좋을 듯싶은데, 집에 가서 나갈 기회가 없기는 하지만 안방이나 관저 안 경내에서라도 휘젓고 다닐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니 참 미안합니다. 하루 더 쉰다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시간을 더 보낼까만, 마음이라도 하루 더 머물고 싶습니다. 하와이에서 내리지 말고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 더 머물고 싶은데, 예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냥 가겠습니다. 요즘 비행기가 한번에 뉴욕에 날아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친척들을 자주 못 보겠지만 또 기회

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안이 많은데 그 중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4만여명이 서명해서 청원하고 있고, 주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지만, 연방정부가 부정적입니다. 해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교섭을 잘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를 만나보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따질 것은 다 따집니다. 단지 외교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바뀌고 한참 지나야 인식이 바뀝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국전을 경험한 사람은 50년 지나도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매쉬(Mash ; 주한미군 이동야전병원)'같은 영화를 보고 한국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겠지만, 그 때문에 한국이 손해 보는 듯합니다.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이 변화해 가면 (한국민에 대한 인식변화도) 조만간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도 규범의식, 질서의식이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국력도 중요합니다. 경제력 ,정치,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만만찮은 국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서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외교적 노력을 펼쳐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수)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들은 미리 자료로 확인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대통령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지,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상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말씀씩 해 주십시요.

일문일답

△ 질문 : 하와이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

하면서 독립자금을 준 정신을 기리면서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이어받는 자료로 삼기 위해 애국용사추모비도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하와이에 애국추모비와 독립운동 문화센터가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 노 대통령 : 감사합니다. 고국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상황이 드라마나 기록으로 재현되는 모습을 보고 또 한편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는 얘기를 해서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모금했는지 이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확인을 해도 확인을 해도 명확한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때 모금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어른들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기념물을 조성해서 기억하게 해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정부도 부끄럽지 않게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서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질문 : 한국인 하와이 무비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4만 명의 서명을 받고 주 상하 양원에 지지결의안이 통과해서 대통령께 자료를 보냈습니다. 또 합심해서 무비자 추진운동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영사관 앞에 무비자 기원 식수도 했습니다. 좀 전에 무비자 문제를 언급해줘서 감사하고 돌아가셔서 바쁘시더라도 하와이에서는 첫 현안이 무비자 추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하와이 경제는 무비자 안 되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완화되고 하와이만이라도 먼저 무비자가 되고, 나아가 미국 전체가 무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박수)

▲ 노 대통령 : 외교부장관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외교부장관에게) 내년에 (부산) APEC 때 부시 대통령이 오는데 그때 선물로 들고 오시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 질문 : 신문을 보면 그냥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대

통령 일에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아플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후세에 많은 국민들이 노 대통령이 한 일을 치하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후회하고 격찬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잘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박수)

▲ 노 대통령 :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욕을 많이 먹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하는 일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욕먹는 것입니다.(웃음) 국민들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화로 이상하게 그려서 욕하고 재미있고 스트레스 풀립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멕시코가 여야 의견차를 하나로 통합해서 제도혁명당을 만들어 71년 동안 집권했는데, 싸움을 없애기 위해 막강한 당을 만들고 국내정치를 통합하는 정당 만들었는데 결국 통합 안 되고 문제 일으키고 정권교체를 하니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여야가 연립정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극단적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 화합의 정치로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각료는 다 갈라서 여야 연립정부를 했는데 그동안 내부의 부정부패, 특권, 이런 것을 제대로 지적을 못해 두 정당이 모두 국민신뢰를 잃어서 99년 말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98년이죠. 그때 집권했던 두 개의 정당이 궤멸했습니다. 선거나 시민봉기로 정부가 버림받을 수준이 되면 그 간의 국민고통이 엄청나게 축적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싸움이 없는 정치도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싸움은 좀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미 대선도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끝나니 쌈박하게 가고, 선거 때는 미국도 별수 없네 하다가도 끝나고 여론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우리보다

좀 낫구나 하기도 하고 우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실력저지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동안 실력저지가 정당화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실력저지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환경으로 갈 것입니다. 실력저지를 차마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 중이고 의회가 말은 좀 거칠어도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정치로 곧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스스로 돌아보고 가다듬을 것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편을 가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식민지를 거쳐 왔는데, 그 식민지 정부를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독재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정 못할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정치를 강행하는 과정을 겪어서 인정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으므로 대결이 극단적이었고, 패배자에게 극단적인 탄압을 했고 저항하는 사람도 극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전 세계 질서를 극단의 질서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한국의 정치가 극단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백 년 동안 극단의 질서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저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는 대결적 사고와 문화, 인정 못할 상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고, 문화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정치 승패는 여기에 달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성공할 것입니다. (박수)

당분간은 우리가 좀 많이 싸우고 대통령도 욕 좀 먹고 또 욕먹는 것을 편안히 받아들이면서 상대와 공존하는 정치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꼭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지지도가 이리 낮아서 하겠냐는 걱정도 있지만 큰 틀에서 경험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잘 신뢰 않습니다. 많이 속았으므로, 내 심상에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므로 불신하고 불신의 안목으로 보면 전부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극단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억압에 눌려서 복종할 때는 몰라도 억압이 없어지고 정보 공개되고 우리 경험에 극단, 불신의 경험이 있고 그러니 정부를 믿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고비를 인내하고 마음을 넓혀서, 저도 숨을 크게 많이 쉽니다. 좀 전에 호텔에서도 넓은 태평양을 보며 숨을 잔뜩 마셔봤습니다. 그렇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박수)